

만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다



첫째 딸로 태어났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국적, 부모, 이름, 성별 등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 그 중, 출생 순서도 마찬가지로 만이인지 막내인지, 혹은 중간인지에 따라 한 집안의 형제일지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다.

‘첫째 딸로 태어났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집안의 첫째 딸이라는 위치에 주목한다. 첫째 딸은 책임감, 리더십, 세심함 등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저자 리처드 스하위테 마커르, 비스 엔트호번 역시 첫째 딸

첫째로 태어난 여자들의 특별한 치유 심리학 자유롭고 스스로 원하는 것들의 중요성 강조

로, 출생 순서가 같은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딸들은 누구나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시절을 거친다. 부모들은 첫째 딸이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온전한 애정을 쏟는다. 이러한 부모의 애정은 아이의 지능에도 영향을 주는데, 부모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만딸들은 학업 성과가 대체로 좋은 편이다. 특히, 동생들에 비해 만이의 학업 열망은 7%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만딸의 열망 정도가 1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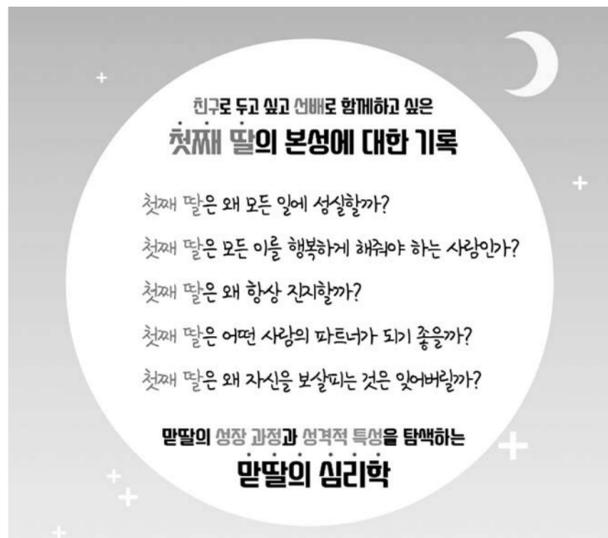
또, 친구나 연인을 결정짓는 데에도 공통점을 지닌다. 만딸의 친구 역시 만 딸인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친형제보다 친구끼리 서로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인으로는 위에 누나가 있는 막내아들과 비교적 맞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린 시절 가족 관계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익숙해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와 사랑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전해진다.

만딸들의 공통점은 성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동생이 생긴 후, 동생을 보느라 바빠진 엄마를 대신해 만이들은 아빠에게 맡겨지곤 한다. 위험한 행동을 못 하게 하는 엄마와 달리 아빠들은 다소 위험해 보이는 행동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만딸들을 용감하게 만들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책임감을 당연시하며 집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의문조차 갖지 않으며 지나다 지쳐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첫째 딸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며 부담감을 덜어내 스스로가 느끼고 원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전에는 ‘장남’의 역할이 있었다면 요즘엔 ‘만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는 만딸들은 때로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첫째 딸로 태어났고 싶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그

역할을 잘 해내 온 이들에게 특별한 공감과 치유의 기회를 선사하며 믿음직한 장녀 모두에게 유쾌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책이다.

갈매나무. 264쪽. 1만4,000원. /이보람 기자

책 니웠어요



◇괴짜들의 비밀=저자 멜리사 실링은 비범한 혁신가들이 연달아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는 데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과 삶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인 슈타인, 스티브 잡스 등의 인생을 소개한다.

새로운현재. 424쪽. 1만6,000원.



◇나는 매일 직장상사의 도시락을 쓴다=과견사원으로 근무하는 미치코에게 정직원 부장이 자신의 도시락을 싸줄 것을 부탁한다. 도시락을 받는 대신 점심값과 식당의 지도, 주문 메뉴를 적은 종이를 주며 점심 코스 바꾸기 놀이를 제안한다.

이봄. 224쪽. 1만3,000원.



◇밤을 가로질러=밤의 여러 모습과 삶의 어두운 면을 그려내기 위해 어둠, 그림자, 우주, 잠 등 ‘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교양 도서이다.

해나무. 352쪽. 1만6,000원.



◇표상문화론 강의의 회화의 모험=표상문화론의 관점에서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한 서양미술사 강의이다. 저자 고바야시 아스오가 도쿄대학에서 강의한 핵심 내용을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광문각. 456쪽. 3만2,000원.



◇인공지능 시대 아이 마음 읽기=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의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일상적인 문제와 습관을 분석하고 대처법과 해결법을 제시하며, 자녀 교육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설명한다.

아주좋은날. 196쪽. 1만4,000원. /이보람 기자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혼자인 삶의 든든한 경제 버팀목이 돼줄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가 출간됐다. 혼자이기에 자유롭지만,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에게 ‘돈’은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다. 쓸데없는 데 돈은 늘 부족하지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1인 가구에게 목돈을 만들어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은 36가지의 돈 관리 법칙을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혼자 벌어도 든든한 1인 가구 돈 관리

국내 최고 머니 트레이너의 일대일 재테크 특강

저자는 재테크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나 혼자 마인드’와 그 힘에 대해 강조한다. 지금 번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모으며, 소득이 끊긴 미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라고 주장한다.

또, 돈을 제대로 모으고 올바른 재테크 판단을 내리기 위한 생활 속 습관을 들일 것을 추천한다. 틈틈이 신문을 읽고 내가 가진 자산의 변화를 관찰해 독창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본격적인 경제와 돈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과 금리와 환율, 주가의 흐름 등을 적어봄으로써 같은 액수의 돈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저자는 독

자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인 가구가 제일 궁금해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월수입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어디에 얼마를 저축을 해야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특히,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오아시스 자금’ 설정을 통해 특정 기간동안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책임질 장기 재테크 정보를 소개한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보험의 올바른 사용법, 노후 자금 마련에 이르기까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서도 1인 가구를 든든히 지켜줄 통장 잔고 만들기를 도와준다.

저자는 10년간 상담했던 재테크 성공자들의 구체적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 독자가 직접 자신의 재무상황과 비교해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월급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법부터 거시적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눈까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돈 관리의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들어있다.

다산북스. 252쪽. 1만4,000원. /이보람 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